

# “노무현 前 대통령은 부루나 존자”

## 정토원 추모법회... 부산 전역서 노무현 前 대통령 2주기 추모행사 잇따라

### 김해 봉화산 정토원장 선진규 법사



라고 비하했다. 하지만 노 前 대통령의 49재는 전국민이 공감하고 화합하는 거룩한 추모의식이였다. 선 원장은 “올해 2주기추모제는 전국 27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그 종교성향을 살펴보니 대

부분이 이웃종교인이고, 불교는 전무했다”며 “불자로서 살다가 죽음으로 불교를 포교한 노 前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불교계에서도 발심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정토원에는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는 20평 남짓의 쉼터 및 전망대가 조성됐다. 전망대를 기점으로 5분 거리의 사자바위를 거쳐 호미드관세음보살상까지 오르는 계단산책로는 ‘대통령의 길’이 새로 생겨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523개의 추모등이 부처님오신날부터 25일까지 불을 밝혔다.

그밖에 부산시내 곳곳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을 추모행사가 4대 중단을 비롯한 시민사회연대단체가

주축이 돼 진행됐다.

‘노무현대통령 2주기 추모행사 부산추진위원회’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부산지역 야 4당과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부산 시민운동단체연합, 부산노사모, 부산시민광장 등 시민사회연대단체 등을 주축으로 5월 한 달간 부산 시민들과 함께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과 ‘노무현 대통령 2주기 추모행사 부산추진위’는 5월 12일 부산시의회에서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과제와 부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22일에는 부산대에서 ‘괴워 투 더 피플 2011, 부산 콘서트’를 개최했다.

박지원 기자

## 죽고싶던 마을 살맛나게

### 박용하 부산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용하관장(사진 가운데)의 복지관 직원들과 웃고 있다.

부산진구 개금3동 산 아래 한 아파트는 한때 2개월에 1명 꼴로 자살을 했다. 1000세대의 보금자리인 단지는 9평 남짓의 공간에서 3대가 부둥켜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시계는 이미 오래 전에 멈춰고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잇단 자살은 이웃 사람들에게 큰 상실감을 남겼다.

최근 이 아파트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다. ‘반딧불이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맹활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지역민들은 주변 동에서 자살을 한 이후,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기봉)으로 찾아와 천도재를 지내달라고 부탁했다.

박용하 개금종합사회복지관(조계종부산연합회 재무국장) 관장은 독거노인을 위한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반딧불이 오케스트라’를 개발했다.

1000세대 중 독거노인을 1차 선별 후 ‘우울증 척도검사’를 통해 선별된 위험군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제안했다. 지역의 음대생 및 음악학원장 봉사자와 연계해 연주하기 쉬운 악기 위주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음악 속에서 생명존중과 불교의 윤회사상을 배운 이들은 더 이상 자살로 삶을 마감하지 않는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불교계가 부산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된 최초의 복지관이다. 옛날 원효 스님이 민중불교를 펼치셨던 것처럼 민중 곁에서 불법을 전하자는 여러 스님들은 사회 복지법인 불국토를 창립했고, 불국토의 첫 복지관이 이곳이기도 하다.

31명의 직원들은 매일 오전 근무 전 예불을 올리고 (반야심경)을 낭독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기적인 사찰 참배를 통해서 서서히 불자가 돼가고 있다.

10년째 복지관을 이끌어 온 박용하 관장은 불교법안 당시, 청년회원으로 활동하던 대각사 스님이 이 영문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연행돼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불교법안은 1980년 10월 27일 군사독재정부가 민중을 길들인다는 이유로 불교를 범죄의 온상으로 폄하해, 교구본사의 스님들은 물론 중소 사찰의 주지·재무·총무 스님들을 무장군인이 강제로 연행해 조사한 사건이다. 그날 이후 재가불자로서 할 일에 대해 고민한 끝에 정관 스님의 어린이포교원(이사장 심상)의 전신인 부산 불교어린이지도자회에서 청년불자로서 열정을 쏟아냈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의 사무국장,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청소년 및 사회복자 포교로 발걸음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 부산연합회의 재무국장 소임을 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부산 교계에서는 복지관하면 ‘어느 절 어느 스님이 하는 것’이라며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불교계 사회복지관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포교의 최일선이라고 여기는 참여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옛날 원효 스님이 민중불교를 펼치셨던 것처럼 민중 곁에서 불법을 전하자는 여러 스님들은 사회 복지법인 불국토를 창립했고, 불국토의 첫 복지관이 이곳이기도 하다.

31명의 직원들은 매일 오전 근무 전 예불을 올리고 (반야심경)을 낭독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기적인 사찰 참배를 통해서 서서히 불자가 돼가고 있다.

청년불자로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어린이·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포교 사각지대를 묵묵히 지켜온 그의 발걸음이 자리아타의 행을 실천하던 부루나 존자를 닮았다. 박지원 기자

## 부산 곳곳서 장학금 전달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잇달아 마련됐다.

부산 범어사 산내암자인 금강암(주지 정만, 조계종 기획실장)은 5월 1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2회 금강암장학회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2명에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총 3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051)508-4509

양산 통도사 극락암 분원 원오사(주지 정관)에서도 꿈나무장학회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현재 꿈나무공부방에 재학 중인 중학생 6명과 둔술학교(주민센터 운영 방과후학교) 재학생 10명에게 각 60만원, 동부산대학생 6명에게 각 5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051)542-7949 박지원 기자

## 몽골불교 한국친선방문단

동북아시아 평화기원 및 몽골 불교 한국친선방문단 환영법회가 5월 1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봉행됐다. 국제 불교교류단체 함께하는세상(이사장 지성)이 마련한 이날 법회에는 지성 스님, 류병선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알랑게르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대관음사 20주년 합창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창건 20주년 합창제를 5월 15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합창제에서는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이 창건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정을 직접 작사한 ‘한국불교대학 환상곡’도 처음 선보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청송교도소 봉축법회 및 교화공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4일 경북북부(청송) 제3교도소(소장 김안식) 청송교도소에서 봉축법회 및 교화공연을 봉행했다. 봉축법회에서 부산 보리암(주지 도일)과 청송 진흥사(주지 현중), 동화사 풍물단원 등 봉사자 70여 명이 재소자와 풍물단원이 한데 어우러져 ‘난타’ 북 공연 등을 진행했다. 이날 김안식 소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감호자 교정교화사업에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불교계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며, 10년 가까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불교교정위원 이정숙 보살(석정사 감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054)971-1778 손문철 대구지사장

## 해처럼 빛나는 행복의 나라

### 6월 4~5일 제5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심상)은 6월 4~5일 충북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51번째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어린이청소년위원회와 동련이 공동 주

최하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와 대한불교교사대학, 어린이 불교교육연구소, 동련 동화구연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는 화랑 스님(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의 ‘읽는 정진’, 류종형 소장(사상심리연구소)의 ‘정진할 도반들과 나누는 기쁨과 복덕’ 강의 외에도 김광호 부학장(대한불교교사대학), 정범 스님(중앙종회포교분과위원장, 육전암 주지),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등의 특별한 강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051)864-4569,4570 www.dongryun.net 박지원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